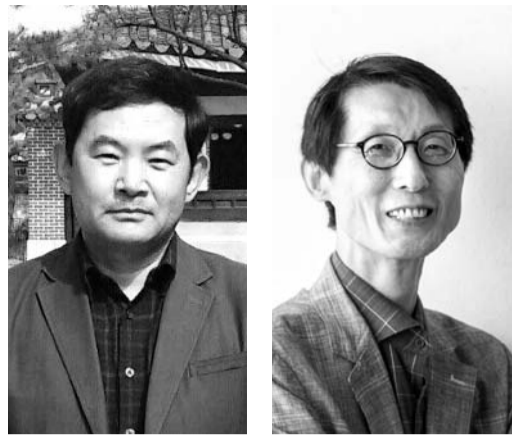


송순문학상 대상에 시조시인 박현덕 선정

수상작 '대숲에 들다'...상금 2000만원
우수상엔 양진영 소설 '소쇄원의 피로인'
30일 담양문화회관서 송순문학제



박현덕 시인

양진영 소설가

제7회 담양 송순문학상 대상에 완도 출신 시조시인 박현덕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조 '대숲에 들다'이며 상금 2000만원.

담양군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순태)는 최근 후보작 심사를 열고 제7회 송순문학상에 박현덕(53) 시조시인의 '대숲에 들다'를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순문학상은 처음으로 시조 장르에서 대상이 선정돼,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순의 문학정신과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가 따랐다. 대상에 선정된 박 시인은 고교 1년 때인 82년 광주일보 호남 예술제에서 시가 입선돼, 일찍부터 시에 재능을 보였다. 또한 고교 3학년 때 '시조문학', '현대시조' 초회 추천을 받았으며 졸업 후 20세(87년) '시조문학' 전례로 등단했다. 21세 때(88년)는 '현대시조',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조가 당선돼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펼쳤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운영하는 송순문학상은 면양 송순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한국 문학발전과 담양만의 특색 있는 문학상 정착과 향후 콘텐츠

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됐다. 박 시인은 "이번 수상은 남도의 역사와 정서를 시조로 더 욱화하라는 뜻으로 알고, 살아 움직이는 시조를 창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작 '대숲에 들다'는 소쇄원, 면양정 등 담양의 명소를 소재로 한 시조집으로 장소가 지나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서정적 언어로 충분히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73편의 작품집과 작품이 응모됐다. 이 가운데 예심을 통과해 본심에 오른 작품은 모두 12편이며 시(시조) 7편, 소설 5편이었다.

본심 심사를 맡은 이지엽·손택수 시인과 한승원·문순태·이미란 소설가는 "대상으로 선정된 '대숲에 들다'는 전통적 율격과 이미지의 조화 속에서 고졸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뿐 아니라 미학적 보편화에 성공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우수상에는 광주 출신 양진영(60) 소설가의 장편 '소쇄원의 피로인'이 선정됐다. 소설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양산보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사료의 충실한 고증으로 작가적 성실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양진영 작가는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서강대 국문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올해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에 당선됐으며 2016년 경상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송순문학제와 연계해 개최된다. 밤 9까지 진행되는 이번 송순문학제는 본행사로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오후 7시10분부터는 '풀꽃시인' 나태주 시인의 문학강연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 담양문인협회 시낭송대회(오후 2시·청년부, 일반부), 담양축죽차연합회 다도체합(오후 5시)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 러시아서 창극 '홍보가' 공연

다음달 1~2일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러시아 소치 시리우스 영재센터가 주관하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을 선보인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아시아 국제 페스티벌'은 매해 아시아 국가 공연단이 참여해 공연을 펼치는 문화 교류 축제다. 러시아 소치 시리우스 영재센터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당시 경기장으로 쓰인 공간을 개조한 곳으로, 본 행사는 센터 내 12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창극단은 지난 4월 창극단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판소리 '홍보가'를 각색한 창극 '홍보가'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한국적인 것'이 드러나는 무대를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으며, 대사보다 전통춤과 퍼포먼스 등 시각적 요소를 늘리고 우리 민요 대신 러시아 노래를 더하는 등 기존 작품에 변화를 줬다.

또한 창극단은 11월 5일 모스크바 민족화관에서 러시아에서 거주 중인 한인교와 현지인을 위한 '광주시립창극단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앙 레디스 앙상블 '오, 사랑' 28일 광주문예회관

금호 중앙여고 동문들로 구성된 중앙 레디스 앙상블(단장 김명숙)이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주회를 개최한다.

8번째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 주제는 '오, 사랑'. 힘들고 주저앉고 싶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고향에 대한 사랑을 담은 곡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그리워라 고향 언덕', '다듬이 소리', '몽계구름', '풍당풍당', '구리구리 쇠뿔구

리', '바람은 남풍', '추억 속으로' 등 합창곡을 선보인다. '배사메루초'를 트럼본 협주곡으로 연주하는 무대도 마련되며, 주제곡 '오, 사랑' 무대에서는 발레 안무도 함께 공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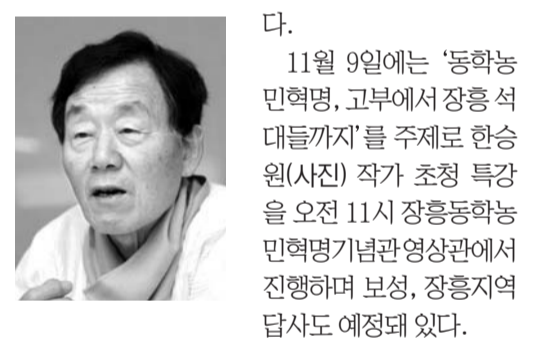
송미나가 지휘봉을 잡고 송희경·한효선(바이올린), 김용환(트럼본), 오향(피아노), 나은영(무용)이 협연한다. 금호중앙여고 개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010년 창단된 중앙 레디스 앙상블은 제1-51회 졸업생 3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전석 초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9일부터 호남한국학 강좌

호남이 언제부터 '의향'이 됐을까? '의향'이 호남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기까지 과정을 조명해보는 호남한국학 교양강좌가 개최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절의로 시대의 격변을 이끈 호남, 의향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4층 다목적실)에서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29일 '의향 호남과 시대정신'(송갑석 의원·전 광주학교 교장) ▲31일 '절의와 호남의 선비들'(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11월5일 '의병, 왜 호남인가?'(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 ▲11월7일 '호남지역 독립운동의 뿌리를 찾아서'(김성광 주하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로 구성됐



다. 11월 9일에는 '동학농민혁명, 고부에서 장흥씩 대들까지'를 주제로 한승원(사진) 작가 초청 특강을 오전 11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영상관에서 진행하며 보성, 장흥지역 답사도 예정돼 있다.

한편 '호남한국학 교양강좌'는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의 후원으로 의향 호남의 사상적, 역사적 시원을 알아보고 호남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음 비웠는데...시조로 첫 수상 기뻐요”

송순문학상 대상 박현덕 시인 인터뷰

담양 역사·가사문학 산실 담겨

올해만 시조로 3개 상 받아

고교시절 백일장 20여차례 수상

“지역 시조 부흥에 힘쓸 터”



엽이 쌓이는 것을 지그시 바라보다 수상 통보를 받았다"며 웃었다.

완도 출신의 박 시인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조시인들이나 문단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는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만 시조로 모두 세 개의 상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상옥백자예술상'(통영시), 8월 '백수문학상'(2000만원) 등을 수상할 만큼, 올해 상복이 터졌다.

“지금까지 '저울삼화', '밤길' 등 모두 8권의 시조집을 냈다"는 말에서 그의 작품의 깊이와 넓이가 대략 가늠이 됐다.

박 시인은 고교 시절 백일장 문예작품 현상 공모에 나가 20여 차례 수상을 했다.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 제대 후 직장을 다니다가 광주대 문예창작과(야간)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에 매진했다.

광주대 1학년 때인 1993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으며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잠시 강사생활을 하기도 했다.

“시조는 정형시로 45자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시처럼 똑같은 시어를 반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어 배치로 극적 긴장감과 절제, 균형을 드러내야 하지요.”

그는 “작금이 오히려 시라는 장르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난해한 해체시의 등장으로 시가 서정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시대의 카톡, 문자, 페이스북은 오히려 짧은 시인 시조가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시조를 쓰거나 공부할 하다가 다른 장르로 전환할 경우 이미 언어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루는 데 수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문학과는 관련이 없다”며 평일에는 창작과 독서를 할 수 없어 “주말이나 쉬는 날을 활용해 공공도서관에 가서 독서와 창작의 맛집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지역은 한국시조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인을 배출했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비해 시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인 육성에도 힘쓰고 싶어요. 나 혼자만의 문학을 하는 것보다 다른 창작자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예정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관·양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철충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용항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